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5년 봄 제71권 1호



르완다의 회복,
말씀으로부터!



(재)대한성서공회



새한글성경

Ch 카톡에서 대한성서공회 채널 추가하세요 +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출간**

원문에 더 가깝게, 읽기는 더 쉽게



원문의 구조, 어원, 어순을 살린 번역
문학 장르에 따른 다채로운 문체

쉽고 간결한 문장
다양한 높임법
새롭고 참신한 어휘
정확하고 명료한 표현

교회 전통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감감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요.”
-시편 23장 4절 중에서-

★ **공인적 성경** : 대한성서공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발간한 성경으로, 12년 동안 각 교단의
성서학자 36명과 국어학자 3명이 여러 단계를 거쳐 번역을 완료한 성경.

 (재)대한성서공회
구입 문의 반포부 02-2103-8847

성서한국

2025 봄 제71권 1호

- 02 **포토에세이**
친구들과 싸워도
말씀을 따라 용서해요!
- 04 **커버스토리**
르완다의 회복, 말씀으로부터!
- 08 **2025 해외 성서 기증 계획**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88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 10 **성경을 받은 사람들**
북마케도니아의 소망,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성경
- 12 **『새한글성경』**
『새한글성경』의 국어학적 특성과 의의 (2)
- 15 **현장 이야기**
하나님께서 레레(Lyéle)어로
말씀하십니다!
- 18 **우크라이나 성경 후원 6,7차 보고**
우크라이나에 6,7차로 성경을 보내다!
- 20 **후원 이야기**
- 23 **대한성서공회 소식**
1. 제142회 정기이사회 개최
2. 『새한글성경』 봉헌 예배 및 학술 심포지엄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5년 3월 31일
· 인쇄인·인쇄처·편집 : (주)타라티피에스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스페인어 어린이 성경을 받은 자펏(Jafet)

친구들과 싸워도 말씀을 따라 용서해요!

과테말라성서공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성경을 통해
과테말라에 만연한 여러 범죄의 위험과 유혹 속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펏(Jafet)도 어린이 성경을 받아 읽으며
성경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며 전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용기를 내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놀아요.

또 성경에서 ‘원수를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친구들과 싸워도 친구를 용서할 거예요.

성경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이제 교회에 갈 때마다 이 성경을 들고 갈래요!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르완다의 회복, 말씀으로부터!



위치

동아프리카 내륙



언어

킨야르완다어
영어
프랑스어



종교

가톨릭(43.7%)
기독교(37.7%)
토착종교(18.6%)



경제

3,100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 2023)

‘천 개의 언덕을 가진 나라’로 불리는 르완다는 국토의 80% 이상이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악 지형이 주를 이루며, 다양한 기후 속에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천 개의 언덕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많은 아픔과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르완다는 1994년에 일어난 종족 분쟁인 ‘르완다 대학살’ 사건으로 불과 100일 만에 인구 약 1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 이웃들의 학살 현장을 목격하였고, 40만 명에

가까운 고아가 생겼습니다. 르완다 정부와 국민들은 대학살로 벌어진 갈등과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추모관을 설립하고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르완다 사람들에게는 대학살의 상처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르완다는 인구의 60% 이상이 25세 이하의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역동적이며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르완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100달러(출처: Trading economics) 정도로 저소득 국



▲ 성경을 받고 기도하는 르완다 사람

가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일거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르완다의 문맹률은 36.8%에 이릅니다.(출처: UNESCO Atlas of Literacy, 2022) 이렇듯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어려움, 교육 기회 부족 등의 문제로 삶의 목적을 잃고 여러 범죄에 노출됩니다.

르완다는 대학살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 젊은 세대의 방황 등 수많은 국가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의 언덕을 넘으면 다음 언덕이 기다리고 있는 힘든 여정이지만 르완다 성서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르완다에 진정한 치유와 화해를 가져올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믿고 성경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르완다성서공회는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 기반 회복 사역, 문자교실, 젊은 세대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다

대학살로 극도의 폭력과 잔혹함 속에 가족과 이웃을 잃은 르완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르완다성서공회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 기반 회복 사역을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성경을 읽으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저는 대학살 사건의 생존자입니다. 성경 기반 회복 사역을 통해 성경이 우리의 고통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저는 대학살 사건으로 생긴 깊은 상처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고, 저와 같은 이웃들을 돕고 싶습니다.”

-성경 기반 회복 사역 참가자

말씀으로 새 삶을 살다

르완다는 절대 빈곤선* 이하 계층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출처: UNDP 보고서, 2022) 가난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글을 알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절대 빈곤선: 세계은행(World Bank)이 규정한 최소 생활을 위해 필요한 수입 기준(하루 1.9달러)

“글을 알지 못하여 좌회전 또는 우회전이라는 표지판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문맹인 상태로 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바지라(Gabazira)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루에 네 번 두 알을 복용하라는 말과 함께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하루에 두 번 네 알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서 간단한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도나타(Donata)

르완다성서공회는 문자교실을 통해 르완다 사람들이 글을 배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사회에 나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문자교실에서는 성경이 교재가 되어 사람들이 글을 배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사람뿐 아니라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다

르완다의 젊은 세대는 대학살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부모 세대와 함께 자라면서 대학

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살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젊은 세대는 가족 간의 갈등, 우울증,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길거리, 청소년 교도소, 고아원에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15%에 이릅니다. 마약 중독 청소년 재활 센터에는 약 4천 명의 청소년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르완다의 청년층 실업률은 25.5%로 높으며, 결과적으로 빈곤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출처: 르완다 통계청)

르완다성서공회는 젊은 세대가 대학살의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경을 보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 기회를 얻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읽으며 심어진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들은 르완다의 든든한 미래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도박을 위해 돈이 필요해서 돼지를 훔쳐 팔려고도 했습니다. 저는 결국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받고, 저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

리고, 구원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에밀(Emile)

르완다의 소망, 성경

르완다는 인구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에 비해 성경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2024년 7월, 르완다 산간 키냐냐(Kinyinya) 지역과 비움바(Byumba) 지역에서 성경 보급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성경이 없어 빈손으로 예배드리던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받기 위해 교회로 모였습니다.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대학살 사건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겪은 르완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혼란과 상처가 남아있는 르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받고 다시 일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빈곤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경을 갖고 싶지만 성경을 살 형편이 되지 않



▲ 성경을 받은 비움바(Byumba) 지역 교회 성도들

는 르완다 사람들과 여러 범죄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젊은 세대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르완다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



르완다 성서 보급 사업
영상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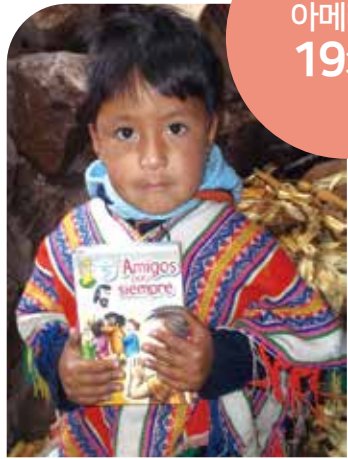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르완다 사람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88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 짧은글씨 -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5.03.04. 기준)

*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후원하신 성경은 전 세계 미자립 성서공회들의 성경 기증 프로그램 및 성경 보급 사업 지원에 사용됩니다.



아메리카
19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카리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37개국

가나,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아시아·태평양
10개국

남태평양,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유럽·중동
22개국

그리스, 레바논,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조지아,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북마케도니아의 소망,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성경

북마케도니아는 남동부 유럽의 발칸반도에 위치한 나라로, 바울의 전도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침공으로 이슬람화되었고, 공산주의 영향까지 더해지며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문화적으로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수준입니다.

또한 북마케도니아는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6,100달러로 이는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2022년 기준 35%에 달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출처: 북마케도니아 통계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고용 촉진 프로그램,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 해외 투자 유치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경제 성장의 한

계, 정책 실행의 한계, 저임금 문제 등으로 여전히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마케도니아성서공회는 북마케도니아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성경을 보급하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져 북마케도니아가 다시 복음화될 수 있도록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편을 읽었을 때, 제 영혼에 직접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을 읽으니 다윗이 저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스테판(Stefan)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저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발에 등불이 되어 죄로부터 저를 지켜 줍니다. 그리고 제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베푸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성경이 보급될 수 있도록 성경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모나(Simona)

“북마케도니아에는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성경이 전해진다면 그들이 하나



▲ 함께 성경 모임을 하는 북마케도니아 젊은이들의 모습

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케도니아성서공회 총무
조코 조르제프스키(Gjoko Gjorgjevski)

성경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들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청년들의 삶에 빛을 비추어 이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

▼ 성경을 받은 북마케도니아 젊은이들의 모습



『새한글성경』의 국어학적 특성과 의의 (2)

민현식(『새한글성경』 국어자문위원, 거례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이전 호에 이어)

(5) 『새한글성경』은 성경의 다양한 대화체를 한국어의 높임법 특징을 살려 실감나게 번역하였습니다.

『새한글성경』은 『개역개정』(1998)과 달리, 다양한 인물의 친근 관계에 따라 비격식체(회화체)인 해요체, 해체(반말)를 비롯해 격식체인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등 다양한 높임법을 살려 번역하였습니다.

『새한글』 창세기 2장

16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의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

17 그렇지만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18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으니 좋지 않아. 그를 도움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군.”

23 사람이 말했다. “이는 드디어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이로구나! 여자라고 불러야지. 남자에게서 뱀내셨으니까!”

『새한글』 창세기 3장

1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교활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동산의 나무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2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다.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3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죽지 않으려면 말아야.”

4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절대로 죽지 않아.

5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된다고.”

위 창세기 2, 3장의 유명한 ‘하나님-인간-뱀’의 대화는 친근 어법인 해체(반말)로만 전개하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친근한 대화를 거부하고 뱀의 친근한 대화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다음 창세기 4장 6, 7절은 해라체, 9절의 가인은 해요체로 다양하게 구사하였습니다.

『새한글』 창세기 4장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무슨 까닭으로 네가 화를 내느냐? 무슨 까닭으로 고개를 떨구느냐?”

7 네가 행동을 잘한다면,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행동을 잘하지 못한다면, 죄가 문 앞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 너에게로 죄의 욕구가 향하고 있더라도, 넌 이겨 내야 해.”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몰라요. 제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6) 『새한글성경』은 차별적 언어 표현을 개선하였습니다.

과거의 인종, 성별, 장애, 질병 표현은 차별 표현으로 비쳐 『개역개정』에서 중립적 표현으로 상당히 순화하였는데 『새한글성경』에서는 ‘귀먹은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등 굽은 자’를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안면장애인, 척추장애인’으로 바꿨습니다.

레위기 19:14

『개역개정』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새한글』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마라.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을 **시각장애인** 앞에 놓아두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는 여호와다.

레위기 21장

『개역개정』 18 ...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19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20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

『새한글』 18 ...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
인이나 **안면장애인**이나 몸 한 부분이
너무 큰 사람은 안 된다.

19 다리 부러진 사람이나 손 부러진 사람
도 안 된다.

20 **척추장애인**이나 키가 너무 작은 사람
이나 ...

(7) 『새한글성경』은 어문 규정을 준수하고, 문
장부호를 도입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띄어쓰기도 원칙을 준수하되 ‘넘는명절, 다
태우는제사, 곡식제물’ 등의 합성 신조어는 붙
여쓰기를 하였는데 이는 문법 용어 ‘안은문장,
안긴문장, 이어진문장’, 일반어 ‘큰집, 지난해,
지난가을, 마른번개’의 붙여쓰기 방식처럼 붙
여 쓴 것입니다.

외래어 표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기존 표기를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초종교
교 교과서에 나오는 표기를 반영하였고, 일부
는 그리스어, 히브리어에 가깝게 적었습니다.

블레셋 → 필리스티아 헛 → 히타이트
갈대아 → 칼데아 구스 → 에티오피아
앗수르 → 아시리아 두로 → 티레
애굽 → 이집트 유대 → 유대아
갈릴리 → 갈릴래아 마게도냐 → 마케도니아
수리아 → 시리아 감람 산 → 올리브산

(8) 『새한글성경』은 가독성을 높여 편집하고,
옛 도량형 단위도 현대 도량형 단위로 적거나
각주로 보충하였습니다.

도량형은 다매체 시대의 한국어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것으로 바꾸어 적고 필
요시 각주에 원문의 단위를 적어 두기로 하였
습니다.

마태복음 6:27

『개역개정』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새한글』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기 키를 단지 *50**센티미터**라도 늘
일 수 있나요?

* 각주: 그, ‘1페퀴스’. 1페퀴스는 1구빗으로 50센티미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한글성경』은 성경 원
문의 뜻과 성경 갈래(장르)의 특성을 살리면서
현대 한국어의 쉽고 새로운 어휘와 간결한 길
이의 문장으로 바꾸고, 한국어의 높임법 특성
을 살려 완전히 새로운 성경으로 번역하였습
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이 한국
어의 표준을 보여 주는 성경이 되어, 한국어
로 온 누리에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기를 바라
며, 『새한글성경』을 읽는 이마다 인생의 목적
을 발견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 레레어 첫 번역 성경을 환영하는 레레 부족

부르키나파소는 서아프리카의 사헬 지역에
위치한 나라로, 프랑스어권 국가입니다. 2022
년 군부정권 집권 이후 자국의 주요 부족어가
공식 언어로 지정되었으나 여전히 프랑스어를
실무 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
는 언어는 60여 개에 이릅니다. 본 공회는 부
르키나파소 부족어 중 하나인 비사(Bissa)어
와 레레(Lyéle)어 첫 번역 성경 제작을 후원
한 서울광영교회 팀과 함께 레레어 첫 번역 성
경 봉헌 예식에 초청받아 부르키나파소를 방
문하였습니다.

수도인 와가두구(Ouagadougou)에 도착
하자 우뚝 선 이슬람 사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웃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의 지원으로 건설
된 부르키나파소 최대 규모의 사원입니다. 이
슬람의 공격적인 포교로 현재 부르키나파소
인구의 63%가 무슬림입니다. 또한 이슬람 극

단주의 무장단체의 활동으로 성도들과 교회가
공격을 받고 일부 지역은 여행이 제한될 정도
로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 성경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평
균 10여 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이곳 사
람들이 성경을 자신의 힘으로 구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부르키나파소성서
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민족의 언어로 번
역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헌신
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지금까지
부르키나파소의 60여 개의 부족 언어 중 10개
언어의 성경 번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최근에 완역된 성경이 바로 비사어와 레
레어 성경입니다.

비사어 첫 번역 성경 번역자

“부르키나파소는 흙먼지가 많고 도로가 대부분 비포장이라 작업하는 컴퓨터가 자주 고장납니다. 번역 기간, 코로나의 영향으로 번역 모임도 갖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번역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으로 진행하게 될 문자교실에는 무슬림도 찾아와 글을 배우며 복음을 듣게 됩니다.”

레레어 첫 번역 성경 봉헌 예식이 열리는 레오(Leo)시는 수도 와가두구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레레 부족은 총 22만여 명 중 42%가 기독교인으로 부르키나파소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복음화된 지역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는 약 85년 정도 되었지만, 그동안 모국어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



▲ 레레어 첫 번역 성경을 읽는 번역자와 감사자



▲ 레레어 첫 번역 성경 도착 예식 행렬

었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첫 번역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광염교회의 후원으로 본 공회가 제작한 레레어 첫 번역 성경은 지난해 9월 부르키나파소에 도착했습니다. 봉헌식 전날, 성서공회에서 보관 중이던 성경을 레오시로 운송하며 성경 도착 환영 예식을 가졌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첫 성경을 받게 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차로, 오토바이로, 자전거로, 어떤 이는 아이를 업은 채로 성경을 실은 차량을 따라가며 환호하였습니다.

다음날 봉헌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뜨거운 날씨에도 봉헌 예식 시작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봉헌 예식은 부르키나파소의 법무부, 행정부, 교육부 장관 등 정계인사들을 비롯하여 천여 명이 참석한 큰 지역 행사였습니다. 레오시 시장은 이런 큰 행사가 레오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이 현장에 참석한 서울광염교회 김중서 집사



▲ 2024년 11월 16일 열린 부르키나파소 레레어 첫 번역 성경 봉헌 예식

는 레레 부족과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축복의 인사말을 전하였습니다.



▲ 레레 부족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서울광염교회 김중서 집사

봉헌 예식에서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 드라마만 안키네 총무는 레레어 성경의 번역 과정과 성서공회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기다림 끝에 이 성경을 받게 된 레레 부족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레레어 성경을 후원한 서울광염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 총무 드라마만 안키네(Dramane Yankiné)

“이 성경이 저희 손에 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성경의 힘을 믿습니다.”

레레어 첫 번역 성경을 통해 레레 부족이 이슬람 문화 가운데도 말씀으로 신앙을 지키며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부족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



레레어 첫 번역 성경
봉헌 예식 현장의 감사,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우크라이나에 6,7차로 성경을 보내다!



▲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우크라이나 성경 발송 내역

차수	내용	부수
1차 (2022년 4월)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6,800부
2차 (2022년 5월)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6,800부
3차 (2022년 7월)	우크라이나어 성경	28,000부
4차 (2022년 12월)	우크라이나어 성경	11,200부
5차 (2023년 4월)	우크라이나어 성경	16,800부
6차 (2024년 11월)	우크라이나어 성경	5,280부
7차 (2024년 11월)	우크라이나어-헝가리어 대조 신약 성경	1,500부
총계	416,380부	

지난 2024년 11월,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6차 발송분 <우크라이나어 성경> 5,280부와 7차 발송분 <우크라이나어-헝가리어 대조 신약 성경> 1,500부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발송된 성경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헝가리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전달됩니다. 헝가리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온 약 6만 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어 헝가리성서공회는 이들에 대한 성경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나톨리 레이키네츠 부총무(우크라이나성서공회)는 현지 상황을 보고하며 “지난 두 주 동안 아이들은 학교보다 방공호에서 더 많은



▲ (좌)한국교회의 후원으로 6차로 발송된 <우크라이나어 성경> 5천 2백 8십 부
(우)한국교회의 후원으로 7차로 발송된 <우크라이나어-헝가리어 대조 신약 성경> 1천 5백 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동안 저는 성경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요청하는 군인에게 성경을 전해주자 그 군인은 성경에 입을 맞추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경은 전쟁 가운데 희망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내지는 성경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우크라이나성서공회 아나톨리 레이키네츠 목사



▲ 기증 예식에 참석한 마다가스카르 선교후원회

마다가스카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선교후원회 - 마다가스카르 <말라가시어-영어-한국어 대조 신약 성경> 3,000부 기증

2025년 1월 22일, 마다가스카르 선교후원회의 후원으로 마다가스카르에 <말라가시어-영어-한국어 대조 신약 성경> 3,0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목사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성경을 받는 자마다 영안이 열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보내어지는 성경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성서공회 파브리스 올리베티노 라벤자리술루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이 세 가지 언어의 대조 신약 성경은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 등 다음 세대에겐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쪽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

스카르는 1인당 국민총생산이 연 522불(2022년 기준)로 매우 낮아 세계 최빈국으로 꼽히며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길거리를 전전하며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간절합니다.

전해지는 <말라가시어-영어-한국어 대조 신약 성경> 3,000부는 극심한 빈곤과 교육의 부재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며 미래를 꿈꾸게 하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큰 마다가스카르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대조 성경을 제공하여 영어와 한글 성경을 함께 읽으며 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레바논 성경 후원자 오연화 권사(왼쪽에서 두 번째)

레바논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연화 권사 - 레바논 <아르메니아어 성경> 2,200부, <시리아어 성경> 80부 기증

2025년 2월 11일, 오연화 권사(소망교회)의 후원으로 레바논에 <아르메니아어 성경> 2,200부, <시리아어 성경> 8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레바논성서공회 마이크 바쏘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권사님의 도움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다.”라고 보내는 성경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오연화 권사는 “이번에 레바논에 후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고, 레바논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중동 레바논은 중동의 아랍권 국가 중에서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영향으로 기독교

인구 비율이 약 40%로 중동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여전히 이슬람의 영향력 아래 있어 레바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크고 작은 종교적 차별과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레바논에 있는 사람 3명 중 1명은 난민에 해당할 만큼, 전쟁과 박해를 피해 떠난 많은 난민들이 레바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 지역 분쟁과 전쟁으로 레바논에도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며,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또다시 난민이 되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후원하는 <아르메니아어 성경> 2,200부, <시리아어 성경> 80부는 레바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여러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치유와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2025. 2. 24.

대한성서공회



▲탄자니아에 기증하는 스와힐리어 성경 앞 김중곤 장로, 민명자 권사

탄자니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김중곤 장로, 민명자 권사 - 탄자니아 <스와힐리어 성경> 5,600부 기증



2025년 2월 24일, 김중곤 장로, 민명자 권사의 후원으로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5,6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김중곤 장로는 지난 2023년, 아프리카 탄자니아 성경 보급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성경을 받는 탄자니아 사람들을 보며 성경 보내기 사역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성서공회 알프레드 키몽게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지난 2023년, 장로님께서 탄자니아의 농촌 마을을 다니시며 성경 보급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전해주시는 성경은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농촌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보급되는 성경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할 것입니다.”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김중곤 장로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생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입니다.”라며 거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탄자니아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주요 종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북부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탄자니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가 인구의 절반에 이릅니다. 하지만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후원하는 <스와힐리어 성경> 5,600부는 이슬람의 확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굳건한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청소년 성경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어 이들이 말씀을 바탕으로 미래를 꿈꾸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

1 제142회 정기이사회 개최



▲ 제142회 대한성서공회 정기이사회 전경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경원 목사) 제142회 정기이사회가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가 “삶의 현장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권의현 사장의 출판·보급 보고와 호재민 총무의 모금 사업 보고, 이두희 소장의 성경번역연구소 보고가 있었

습니다. 안건으로는 교단대표로 이현식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김병윤 목사(구세군대한본영), 이건희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김경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가 선임되었습니다. 찬성회원 대표로는 김현배 목사, 손인웅 목사, 정하봉 목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이어 송영훈 감사를 선임하였으며, 호재민 총무를 재선임하였습니다. ☺

2 『새한글성경』 봉헌 예배 및 학술 심포지엄

| 일시 | 2025년 4월 8일(화) | 장소 | 영락교회 본당(서울 중구 수표로 33)

본 공회에서는 2025년 4월 8일(화)에 『새한글성경』 봉헌 예배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봉헌 예배

오후 2시~3시 20분

- 인도 : 김경원(대한성서공회 이사장)
- 설교 : 김운성(영락교회 위임목사)

학술 심포지엄

오후 3시 30분~6시 30분

주제 :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께
『새한글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 문의 | 02-2103-8853, 8854

 (재)대한성서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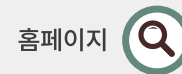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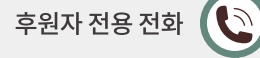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재)대한성서공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체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2025 사순절 해외 성경 특별 후원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종교적 핍박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중동 지역 이웃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성경은 중동 지역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지킬 힘이 되고,
전쟁과 박해 속에서도 희망과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중동 지역에 전해지도록 성경을 보내주세요!

